

TV 26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채널A	KBS1	KBS2	MBC	KBC / SBS
40 코로닝 A	00 KBS 뉴스광장	00 2TV 아침	00 MBC 뉴스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7	50 인간극장		10 광주 MBC 뉴스투데이 50 MBC 아침드라 (폭풍의 여자)	30 KBC 모닝와이드
8	00 아침경제 골든타임	25 아침마당	00 KBS 아침 뉴스타임 40 지구촌 뉴스	30 생방송 오늘 아침
9	00 신문이야기 돌직구 쇼+	30 KBS 뉴스	00 TV스설 40 여유만만	30 MBC 생활뉴스 45 기본 좋은 날
10	20 시사 인사이드	00 국회 대정부 질문 (경제)	40 반려동물극장 (단짝)(재)	00 SBS 뉴스 30 SBS 생활경제
11	30 이제 만나러 갑니다(재)	05 수목드라마 (착하지 않은 여자들)(재)	00 주말드라마 (장미빛 연인들)(재)	10 KBC 저녁뉴스 30 한국의 맛
12	40 채널A 뉴스특보	00 KBS 뉴스12 55 바른말 고운말	10 비타민	00 SBS 12 뉴스 45 닥터365 55 남도의 보물 100선
1	50 김부정의 뉴스통	00 대조영(재) 55 TV 동화 빨간자전거	10 세상의 모든 다큐(재)	15 세상발견 유레카 55 날씨와 생활
2		00 제5회 전국 중계 대학축구연맹(결승전)	00 KBS 뉴스타임 10 인간극장 스페셜(재) 50 한국인의 발상(재)	00 건강 클리닉(재)
3	00 직인직설		45 후토스(재)	
4	20 쾌도난마	00 KBS 뉴스 4 10 스키우트(재)	10 아동공부책상 위키 40 TV 유치원 공다공	00 로봇 트레인 30 푸리가 탐구 생활
5	30 박정훈의 뉴스 TOP10	00 KBS 뉴스 5 20 전국을 달린다 40 남도지오그래피	10 마법천자문(재) 40 동물의 세계(재)	00 SBS 뉴스플러스 15 KBC 저녁뉴스 30 내 마음의 크레파스
6		00 6시 내고향 55 시청자칼럼 우리사는세상	00 KBS 글로벌24 30 2TV 생생 정보	10 생방송 빛날 00 날씨와 생활 05 닥터365 10 KBC 생방송 투데이
7	10 이제 만나러 갑니다(재)	00 KBS 뉴스7 30 한국인의 발상	50 일일 드라마 (달콤한 비밀)	10 시사타치 따따따 20 일일드라마 (달려라 장미)
8	20 모쿠 드라마 (싸인)(재)	25 일일연속극 (당신만이 내사랑)	30 반려동물극장(단짝) 55 미녀와 야수	00 SBS8 뉴스 35 KBC 8 뉴스 55 순간포착 세상에 이런일이
9	30 채널A 종합뉴스	00 KBS 뉴스9		30 리얼스토리 눈
10	50 채널A 스포츠 뉴스	00 광복 70년 특집 (되살아난 역사 주미 대한제국 공사관) 55 스포츠	00 수목 드라마 (착하지 않은 여자들)	00 드라마 스페셜 (하이드 지킬, 나)
11	00 이제 만나러 갑니다(재)	00 KBS 뉴스라인 40 범죄예행보고서 당신의 짐은 안전합니다	15 해피 투게더	15 자기야
12	40 내조의 여왕(재) ①:50 카툰쇼 S(재)	30 네트워크 문화 특선 올댓 뮤직 ①:20 생활의 발견	45 2015 코리아 오픈 국제 댄스스포츠 대회	35 나이트 라인 ①:05 토크쇼트 화통(재)

EBS

05:00 World News Review	09:40 부모 (생활백과)	14:15 치료와 친구들	17:45 뽀롱뽀롱 뽀로로
05:40 만나고 싶습니다(재)	10:10 세계신문 아틀라스	14:30 미술탐험대	18:00 생방송 퓌트! 보니하니
06:10 세계의 눈 (특선)(재)	10:50 최고의 요리 비결	14:45 미앤미로봇	19:00 군
07:00 시계마을 티키토(재)	11:10 최고의 요리비결 플러스	15:00 꼬마 철학자 휴고	19:50 달라졌어(재)
07:15 곤(재)	11:20 세계테마기행	15:15 어린 왕자	20:40 다큐 오늘
07:30 책과 땅(재)	12:00 EBS 정오뉴스	15:30 정글북	20:50 세계테마기행
07:45 로보카 폴리(재)	12:10 연중기획	15:45 오미와 친구들	(중국 광둥 홍콩)
08:00 당동영 유치원	(행복한 교육세상)	16:00 당동영 유치원	21:30 한국방송
08:20 뽀롱뽀롱 뽀로로(재)	13:05 역사채널e	16:20 버블버블 마린	(음향는 강원)
08:35 방귀대장 뽀롱이	13:10 부모광장(재)	16:35 웬디 불스	21:50 EBS 스페셜 프로젝트
08:50 How-만들어 볼까요	13:40 내 이름은 펄기	16:45 How-만들어 볼까요(재)	22:45 다문화 고부열전
09:05 바오밥섬의 파오파오(재)	13:50 뽀롱뽀롱 올리	17:00 방귀대장 뽀롱이(재)	23:35 글로벌 프로젝트 나눔
09:20 최강전사 미니특공대	14:00 시계마을 티키토	17:15 바오밥섬의 파오파오	24:05 역사채널e
09:35 따개비루		17:30 로보카 폴리	24:10 EBS 스페이스 공감

EBS플러스1

00:00 올림포스 <국어II-일파개념>	12:10 올림포스 <국어II-일파개념>
00:50 " <고교 영어독해-junior>	13:05 " <고교 영어독해-junior>
01:40 " <화물과 통계>	14:00 2016 수능특강 <국어A>
02:30 " <기하와 벡터>	14:50 올림포스 <화물과 통계>
03:20 " <수학II>	15:40 " <기하와 벡터>
04:10 올림포스 평가문제집 <기하와 벡터>	16:30 " <수학II>
05:00 뉴탐스런 <화학I>	17:20 올림포스 평가문제집 <기하와 벡터>
06:00 " <지구과학I>	18:10 뉴탐스런 <화학I>
06:40 " <세계지리>	19:20 " <지구과학I>
07:30 " <법과 정치>	20:00 EBS 스타강사 특강 <영어b>
08:20 2016 수능개념 <윤리주의 영어>	20:50 2016 수능특강 <영어b>
09:10 " <이웃주의 수학II>	21:50 " <수학I b>
10:10 2016 수능특강 <영어b>	22:30 박복의 이슈로 만나는 경제 <수학I b>
11:00 " <수학I b>	23:10 2016 수능특강 <국어A>

EBS플러스2

07:00 2015 공인중개사 시험대비강좌	16:20 " <과학 5-1>
07:30 9-7급 공무원 시험대비 강좌	16:50 " <과학 6-1>
08:30 검정고시 교양강좌	17:20 리얼체험 탐
09:00 출제문 수학 EBS MATH	17:50 다큐 오늘
09:10 TV 중학 <국어①②>	18:00 TV 중학 <국어⑤⑥>
09:50 " <영어>	18:40 " <영어3>
10:30 " <도덕>	19:20 과학탐정단 시드
11:10 " <국어③④>	19:40 사이틴-백만인의 지구뉴스
11:50 " <영어2>	20:00 EBS 인문학 특강
12:30 EBS 특강 <과학1>	20:50 EBS 기획시리즈
13:10 중학 학습비법특강 <과학1>	21:40 EBS UCC 공모 나피디
13:50 " <과학2>	22:00 중학 학습비법특강 <과학3>
14:30 " <역사2>	22:40 TV 중학 <국어⑤⑥>
15:20 만점왕 <과학 3-1>	23:20 필독 <사회2>
15:50 " <과학 4-1>	24:00 EBS 역사특강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2월 26일(음 1월 8일 癸酉)

子	48년생 대수롭지 않게 여기다가는 큰일을 당할 수도 있느니라. 60년생 그나마 위안이 될 것이다. 72년생 웃은 새 것이 좋고 사랑은 오래 된 이가 좋은 법이다. 84년생 현재의 시점에서 빈틈을 보인다면 치명적이나. 행운의 숫자 : 74, 83	午	42년생 안전하지 않다면 우리가 따라라. 54년생 길상이니 하는 일 다 순조로울 것이다. 66년생 다소 허황 조절하는 것이 안전을 도모하는 길이나. 78년생 깊이 연관 되어 있음을 감안 해야겠다. 행운의 숫자 : 53, 93
丑	49년생 일시적인 정세 현상으로 인해서 답답함을 면키 어렵겠다. 61년생 절실한 것에 대한 언급이 있거나. 73년생 일일이 확인하고 점검해야 할 것이다. 85년생 객관적인 사실만을 가지고 논하는 것이 합당하다. 행운의 숫자 : 31, 88	未	43년생 고정 관념을 버리고 새롭게 시도해 보는 것이 적절하다. 55년생 남의 눈에 띠지 않게 조용히 처리하라. 67년생 가장 기본적인 것에 서둘러서 해를 막겠다. 79년생 남편은 자기 성찰을 하게 하는 기회를 줄 것이다. 행운의 숫자 : 27, 01
寅	38년생 연장선상에서 이해해도 무리는 없었다. 50년생 스스로 정리 될 것이니 내버려 두되 된다. 62년생 반항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74년생 비교해 봐야 한다. 86년생 안정 궤도로 진입했으니 그대로 밀고 나가면 된다. 행운의 숫자 : 04, 22	申	44년생 형상 너머에 있는 바를 조망할 수 있는 안목이 아쉽다. 56년생 선택 여하가 판국을 좌우하게 될 것이다. 68년생 어떠한 대국에 임하더라도 기본 구도를 고수하라. 80년생 뒤따르는 이가 보인다. 행운의 숫자 : 98, 44
卯	39년생 노력 여하에 따라 성과가 천양지차이다. 51년생 정성을 다한다면 길은 열리게 될 것이다. 63년생 따스한 행운의 햇살이 포근히 감싸고 있다. 75년생 기본적 기치는 불변하다는 것을 알라. 87년생 일반적이거나 한다. 행운의 숫자 : 23, 50	酉	45년생 전진만이 능사가 아님을 알라. 57년생 상당히 기다리고 있어야만 기다이 집힐 것이다. 69년생 구체적이지 않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음을 알아야 할 것이다. 81년생 성부에 집착하지 말고 최선을 다 하자. 행운의 숫자 : 80, 61
辰	40년생 지난번 보다 범위가 넓어질 것이다. 52년생 적합하지 않다면 수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64년생 버터 낸다면 더 견고해질 것이다. 76년생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느니라. 행운의 숫자 : 41, 06	戌	46년생 별개의 개념이나 함께 다룰 일이 아니다. 58년생 차질이 없도록 지밀한 준비를 해야 한다. 70년생 사소함에 얽매이지 말고 대의를 따라라. 82년생 변화는 주변 환경에 의해서 혼란을 일으킬 수도 있다. 행운의 숫자 : 62, 70
巳	41년생 시간이 늦으면 손실이 따를 수밖에 없을 것이다. 53년생 누락될 수도 있으니 잘 살펴야 하느니라. 65년생 오로지 실력 대 실력끼리의 대응 관계에 놓일 것이다. 77년생 간접 경험의 효과가 매우 크다. 행운의 숫자 : 34, 58	亥	47년생 이직전심으로 인해서 수월하게 진행 될 수 있다. 59년생 실수한다면 주변인에게까지 피해가 가리라. 71년생 꾸준한 진행은 성공의 밑거름이 될 것이다. 83년생 긍정적인 사고가 균형 잡힌 시각을 갖게 하리라. 행운의 숫자 : 71, 02

“전화상담도 받습니다. 광주일보 독자원영!” ☎010-9790-8237

“영원한 멤버愛 ... 본보기 되고 싶어”

신화 오늘 12번째 앨범 ‘위(WE·우리)’ 발표



“회사에서 17년차면 부장급 아닌가요? 단순히 데뷔한 지 오래된 그룹이 아니라 후배들이 본받고 싶어하는 그런 그룹이 되고 싶습니다.”

올해로 데뷔 17년이 되는 6인조 남성그룹 신화(사진)가 26일 12번째 정규 앨범을 발표한다. 신화의 새 앨범은 지난 2013년 11집 이후 1년 9개월 만이다. 앨범 제목은 ‘위(WE·우리)’로 정했다. 여기에는 지난 17년처럼 앞으로 17년도 이 멤버 그대로 함께 하겠다는 의지와 오랜 시간 애정을 보여준 팬들과 함께하겠다는 의미를 담았다.

최장수 그룹이라는 타이틀만큼 선배 가수로서 가요계에서 차지하는 역할과 책임이 더 커졌다는 부담에서 마음을 다잡고 앨범 작업에 최선을 다했다고 이들은 입을 모았다.

이민우는 “신화가 기획 단계부터 맨스 그룹으로 시작했고, 사람들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부분도 퍼포먼스인 것 같다”라면서 “이번 앨범에서 이런 기대를 충족시켜주겠다”고 자신했다.

이번 앨범에 수록된 10곡 중 멤버들의 오랜 논의를 거쳐 선정된 타이틀곡은 ‘표적’이다. 사로잡고 싶은 여자를 표적으로 빗대어 표현한 곡이다.

각각 10집과 11집의 타이틀곡인 ‘비즈니스’와 ‘디스 러브’를 작곡한 영국 작곡가 앤드루 잭슨이 다시 한번 신화를 위해 만든 강한 비트의 일렉트로닉 서플 댄스곡이다. 이번에는 작곡팀 런던 노이즈가 가세해 곡의 완성도를 높였다.

앤드루 잭슨과 런던 노이즈는 ‘얼음달’ ‘네버 기브 업’ 등의 곡에도 참여했다.

에릭은 “직전 앨범의 ‘디스 러브’보다는 더 강력한 안무를 선보일 계획”이라며 “웅장한 안무로 유명했던 ‘브랜뉴’ 같으면서도 보이 그룹 같은 칼 군무 대신 1~3명이 추는 포인트 춤으로 맛을 더했다”고 소개했다.

신화 소속사 관계자도 “신화 역사상 가장 강력한 곡”이라고 귀띔했다.

멤버들은 신화 특유의 남자다움이 돋보이는 파워풀한 군무를 위해 현대무용 스타일로 유명한 최영준 디렉터에게 안무를

뢰했다. 김동원은 “난이도 있는 안무를 소화하려면 어제는 무릎에 관절염 패치를 붙이고 연습했다”라면서 “무대를 보면 신화가 이제 나이 들어서 예전처럼 못하지 않겠느냐는 얘기가 속 들 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앨범은 멤버들의 적극적인 참여도 눈에 띈다. 에릭은 지난 앨범에 이어 이번 앨범에서도 전곡의 랩 작사를 맡았다. 이민우는 ‘올라잇’(Alright) 등 3곡을 작사하고 전체 앨범 프로듀싱을 도맡았다.

멤버들 사이의 ‘형제애’는 신화가 단 한 명의 이탈도 없이 그룹을 유지할 수 있던 비결이기도 하다.

인터뷰 내내 침묵하던 엔디는 조심스럽게 “멤버들에게 미안하고 고맙다”라고 운을 뗐다. 2년 전 불발 스포츠 도박 사건에 연루돼 활동과 외부 활동을 끊고 자숙했던 그는 “멤버들을 위해 뭐든지 더 해야겠다. 더 잘해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한다”라면서 “큰 실수로 팬분들에 심려를 끼쳐 정말 죄송하다. 좋은 모습 보여 드리고 싶다”고 힘주어 말했다.

엔디의 갑작스런 고백에 옆자리에 앉은 전진은 엔디의 손을 잡고 “엔디가 당시 너무 미안해했다. 멤버들끼리 잘못된 일이 있으면 채찍질을 하는데... 진짜 채찍질을 할 것 그랬나 보다”는 농담으로 어색한 분위기를 순식간에 반전시켰다.

엔디는 전날 한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 도박 사건 직후 아버지가 뇌출혈로 쓰러지자 멤버들이 수술비용을 부담한 사연을 소개해 온라인에서 화제가 되기도 했다.

멤버들은 이런 과거를 다 털고 앞으로 나아가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전진은 “회사원은 17년이면 부장급 연차다. 우리가 그렇게 오래됐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앞으로 17년은 더 해야겠다. 그리고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도 한다”고 말했다.

에릭은 “앨범이 잘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이미 1위도 해봤고 트로피도 많이 받아왔다. 앞으로는 멤버들 모두 더 행복하고 즐겁게 활동했으면 하는 바람이다”라며 웃었다.



“역할 맞는 근육 만들려고 식이요법·운동 병행했죠”

영화 ‘순수의 시대’서 김민재 장군역 신하균

“몸에 지방이 거의 없어지니까 지구력이 약해져요. 후반으로 가면 갈수록 체력적으로 많이 힘들었어요. 극단적으로 몸을 만드는 것도 처음이자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했는데 이렇게 몸이 부각될 지는 몰랐네요.”

다음 달 5일 개봉 예정인 영화 ‘순수의 시대’에서 ‘신경질적인 근육’을 선보인 배우 신하균(41)은 25일 서울 삼정동에서 가진 인터뷰에서 “지금 근육이 많이 온화해졌다”며 웃었다.

“제1차 왕자의 난”이 일어난 1398년을 배경으로 한 영화에서 그가 맡은 역은 정도전의 사위이자 삼군부 수장으로 어머니를 닮은 기녀 ‘기희’(강한나)와 사랑에 빠지는 김민재 장군. 전장에서 뼈가 굵은 인물인데도 멜로 라인 때문에 정사 장면도 많아 노출은 필수였던 셈. 연출을 맡은 안상훈 감독은 그에게 몸을 만들어 줄 것을 주문했고, 신하균은 촬영 3개월 전부터 식이요법과 운동을 병행해 ‘신경질적인 근육’을 완성해냈다.

신하균은 “촬영이 끝날 때까지 7개월간 식이요법을 했다”며 “다들 예민해지지 않을까 걱정을 많이 했는데 예민해지지는 않았고 그냥 힘이 없었다”고 했다.

“화날 힘도 없고 아무도 안 건드렸으면 좋겠다고요. 제가 원래 촬영할 때 말을 많이 하는 편은 아니긴 한데 이번에는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좋기도 하고, 생각을 하는 것도 뇌를 많이 쓰면 칼로리가 소모되니까 피곤해요. 머리까지 쓰면 너무 피곤하니 그냥 가만히 있었죠. 하하.”

그는 “(김민재가) 항상 전투에 나가고 몸을 많이 쓰는 사람이고 상처도 있으니 안쓰러워 보이는 근육이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근육이 더 많이 나와서 오히려 촬영 들어가기 전에 좀 꺾었다(웃었다)”고 말했다. 1998년 ‘기막힌 사내들’로 데뷔한 신하균은 그동안 ‘공통경비구역 JSA’(2000), ‘킬러들의 수다’(2001), ‘복수는 나의 것’(2002), ‘지구를 지켜라’(2003), ‘월경 두 동막골’(2005), ‘고지전’(2011), ‘빅매치’(2014) 등을 통해 다양한 캐릭터로 존재감을 과시하며 ‘믿고 보는 배우’로 자

리매김했다. 그런 그에게 ‘순수의 시대’는 의외로 여러모로 처음인 게 많은 작품이다. 사극이 처음인데다 본격적인 멜로를 선보이는 것도, 액션 연기도, 심지어 말을 타는 것도 모두 처음이라고 했다.

신하균은 “칼을 써 본 적이 없는데 액션을 머리로만 외운다고 되는 게 아니라 몸으로 반사적으로 나가야 되는 거라 힘들었다”라면서 “액션은 다음에 하게 되면 더 잘하고 싶고 더 해보고 싶다”라고 했다. ‘순수의 시대’는 강인하고 굳건한 한 남자가 자신을 유혹하려 접근한 여자 때문에 무너지는 내용과 다양한 체류의 정사선 때문에 리안 감독의 영화 ‘색, 계’를 연상시키는 면이 있다.

“사실 영화 제작 초반에 ‘색, 계’와 비슷하다는 얘기가 나왔어요. 캐릭터의 관계와 정사선 때문이에요. 하지만 일부러 ‘색, 계’를 다시 보지는 않았어요. 정사선에서도 체류도 체류지만 두 사람의 감정을 중요하게 생각했죠. 어떻게 보였을지는 모르겠지만 촬영하면서는 또 다른 언어, 대화로 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신하균은 “순수라는 단어에 갇혀서 보여주려고 하지는 않았”다라면서 “아방이나 쾌락이 아닌 순수한 사랑으로서의 욕망, 본인의 결핍을 채워주는 여자에 대한 사랑을 보여주려고 했다”라고 설명했다.

상대역인 신인 배우 강한나에 대해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신하균은 “(강한나가) 항상 노트를 들고 다니면서 감독이 준 디렉션, 제가 가끔 건네는 얘기를 기록하고 공부하는 자세가 놀라웠고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정사선도 어려웠는데 머리 없이 잘했고 다음 작품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아직 미혼인 신하균은 “(극중 김민재처럼) 모든 것을 버리고 사랑 하나의 힘으로, 상대가 보여준 모습이 설사 거짓이었던 라도 본인이 믿는 사랑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순수함, 그런 순수한 사랑을 꿈꾼다”고 말했다. /연합뉴스